

2016 JUNE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6.06.20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6년 2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2일간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3개국 9개 도시 18개 대학에서 67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관련기사 p.8)

비슈케크 인문대

(관련기사 pp.2-3)

제 13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퀴즈대회, 정병후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 특강, 2016 언어축제, 나우르즈 행사

키르기스-한국대학

(관련기사 p.4)

제 1 회 한국학퀴즈대회, 2016 키르기스스탄 교육 박람회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5-6)

2016 카자흐스탄 동양학 올림피아드, 대학생학술대회 <파라비 알레미>, KF 한국학특강, 제 3 차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7-8)

조용천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 초청강연,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1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슈케크 인문대

제 13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퀴즈대회

2016년 5월 14일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제 13 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소재 한국어(학) 전공대학과 부전공 및 제 2 외국어개설대학, 그리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한국학축제’였다. 특별히 정병후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본 대회는 초급부와 중고급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참가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상식 등 한국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골든벨식으로 풀어 우열을 가린다. 13회 대회까지 개최된 본 퀴즈를 통해 학생들은 평소 수업시간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한국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오슈에 위치한 오슈공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였다.



정병후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 특강

2016년 5월 12일 정병후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는 비슈케크 인문대를 방문하여 아브델라 무사예프 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의 관계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정 대사는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달한 키르기스공화국도 한국과 같이 새마을운동, 인적자원 개발 등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양국간 협력 등을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이 더욱 번영하고 양국간 우호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교 3층 강당에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향후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 전망을 가늠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정 대사의 본교 방문에는 새로 부임한 민재식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장도 동행하였다.



비슈케크 인문대

2016 비슈케크 인문대 언어축제

2016년 비슈케크 인문대 언어축제가 동양학 및 국제관 학부 주최로 4월 30일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비슈케크 인문대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아랍, 페르시아의 언어와 문화 행사를 주축으로 진행이 되고,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영어권의 언어와 문화도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관련 언어권 학생들은 평소 익혀 온 기량을 본 행사를 통해 발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학과 학생들은 연극으로 ‘바보 온달’을 준비했는데, 특히 장군이 된 온달의 활약상을 태권도와 접목하여 많은 관중의 갈채를 받았다.

언어축제는 비슈케크 인문대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 경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큰 행사이다.



비슈케크 인문대 나우르즈 행사

키르기스스탄의 전통명절인 나우르즈(3월 21일)를 맞아 매년 비슈케크 인문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음식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전시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한국 음식은 한국학과가 주축이 되어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비빔밥, 불고기, 김밥, 잡채, 김치, 떡볶이, 파전 등을 전시하였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식 부스는 행사에 참여한 외부 손님과 비슈케크 인문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키르기스-한국대학

제 1 회 한국학퀴즈대회

2016년 4월 29일 제 1 회 키르기스-한국대학 한국학퀴즈대회가 선시티(Sun City)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초급부와 중급부로 나누어 진행된 퀴즈대회는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여 골든벨식으로 진행을 한다. 행사는 취지는 학생들에게 평소 수업시간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한국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한국 관련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구축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데에 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상금으로 지금된 1,300 달러는 본교 소속 김기원 교수(KOICA 파견)가 사비를 들여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원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본 행사가 개최되는 산파 역할을 하였다.



2016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키르기스-한국대학은 2016년 4월 로자 오튼바예바(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재단이 주최하는 2016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에 참여하였다.

매년 4월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로, 키르기스스탄의 다양한 교육관련 기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AUSA(미국 설립), 마나스대(터키 설립) 등 키르기스스탄 유수의 대학들이 참여하였다.

한국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매년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키르기스-한국대학은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카자흐 국립대

2016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2016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립대에서 2016 카자흐스탄 대학생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교육부 주관으로 앞서 지난 2월에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어문학과 통번역 분야에 대한 올림피아드가 진행된 바 있다.

카자흐국립대가 주최한 이번 올림피아드에서는 동양학 분야에서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등 4개 언어의 경시대회가 열렸다.

한국학 분야의 경우, 평가는 한국어, 역사 테스트, 글쓰기/발표로 이루어졌다. 오전에 진행된 한국어 및 역사 테스트는 각 50개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한국어 문제는 TOPIK 3~6급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역사문제는 전 시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선에서 출제가 되어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테스트했다. 이어 진행된 글쓰기에서는 주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확인했다. 오후에 진행된 마지막 발표 평가(프리젠테이션)는 오전 평가에서 통과된 상위 10명의 참가자들만이 참가한 채 진행되었다. 발표를 통해 말하기 능력과 준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학술대회 <파라비 알레미>

2016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서 카자흐 국립대에서 대규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파라비 알레미>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카자흐 국립대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체 15개 학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란어, 페르시아어 등 8개 언어가 속해있는 동양학부에서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발표나 논문투고로 참여했다. 주제별로 4개 섹션(1섹션 역사, 경제, 정치, 2섹션 언어와 문학, 3섹션 문화, 철학, 종교, 4섹션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반응”)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기본적으로는 카자흐 국립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누구든 참가가 가능하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캡차가이 홍보

2016년 2월 13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캡차가이에서 학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알마티주에 속한 캡차가이는 알마티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인구 6만 명 정도의 소도시이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4명의 교원들(이병조 한국학과장 외 3명)과 10명의 재학생들이 함께했다. 홍보활동에는 기존의 내용과 사진이 대폭 수정 보강된 학과 홍보책자와 영상물이 이용되었고, 그 외 한국 전통춤과 K-pop, 노래 등이 동반되었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특강

2016년 4월 28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월 29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정기적으로 해외 한국학 수강생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알마티에서는 지난 2014년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5년 KIMEP에서 특강이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김영훈(이화여대), 서정수(계명대 아담스칼리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김영훈 교수는 “20세기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전했고, 서정수 교수는 “한국 산업정책의 발전으로 보는 한국 경제성장: 카자흐스탄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현재 카자흐스탄의 경제 상황과 배치시키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시사했다.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모두 100명이 넘는 한국학 수강생과 교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특강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유용한 시간이었다.



제3차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2016년 5월 13일 주알마티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가 주관하는 제3차 한국-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오픈 포럼이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이병조 교수(카자흐 국립대)가 진행하여 이석윤 부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 넬리 교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다문화 사회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가지는 민족정체성의 혼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 나선 최지영 교수(카자흐 국립대)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사이의 혼동하기 쉬운 부사어의 격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는 했으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조용천 주카자흐스탄 대사 초청강연

2016년 5월 6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본관 대강당에서 조용천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 초청 강연이 있었다. 쿠난바예바 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사하노바 전략개발부총장의 환영사, 카자흐스탄 전통무용공연, 2015 K-POP World Festival 카자흐스탄 노래부문 우승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식전행사를 마치고 조용천 대사는 “한반도 통일과 카자흐스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학 전공생과 국제관계 전공생들,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300명 이상의 청중이 몰렸다. 강연에서 조용천 대사는 조 대사는 젊은 시절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1990년대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실현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통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계경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각종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한 후 급속히 발전하였음을 보였다.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한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경제의 우월성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남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가 긴장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방향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덧붙여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긍정적 상상력을 발휘해 줄 것과 통일 후 전개될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을 당부하였다.

강연을 마친 후 조 대사는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한 학생들에게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강연을 듣고 아미로바 누르자이나(통번역 3학년)는 “언젠가는 통일된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싶다.”고 감상을 밝혔다. 또한 예세토바 잔사야(동양학 2학년)는 “한국에 있어서 통일이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여, 이번 강연이 카자흐스탄의 젊은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주관한 한국어작문경시대회(주제 ‘한반도의 통일’)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1등(상금 500\$) 이자트 아이다(한국학과 3학년), 2등(각 300\$) 무하멧칸 살타나트(3학년), 임 일로나(2학년), 3등(각 100\$) 10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참석한 학생들은 김밥, 불고기, 잡채 등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별도로 마련된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 대사는 한국학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상명대는 2016년 2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2016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된 경시 대회에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의 3개 부문에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탈디쿠르간,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사마르칸트 등 3개국 9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67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총 9개 언어에서 3개 영역 25개 부문에 걸쳐 4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전체 개회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과 한국어 부문의 문법, 어휘론, 문학, 문화 등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통번역 부문은 번역과 통역 시험이 실시되었다.

둘째 날, 어문학 부문은 이석윤(알마티 총영사관 참사관), 백태현(비슈케크 인문대), 이재우(키르기스 국립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통번역 부문은 김 올레크(법무법인 CIS Group 대표), 김 스베틀라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샤태코바 굴누르(카자흐 국립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번역과 통역을 심사하였다. 한국어부문은 김종희(상명대 부총장), 권혜숙(상명대 대외협력처장), 김종일(알마티 한국교육원장), 박종필(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원장), 강동희(알마티 한국교육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말하기를 심사하였다. 발표를 마치고 참가 학생들과 심사위원들은 준비한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심사 결과 어문학 부문의 1위는 우테울리예프 무함메트알리(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통번역 부문의 1위는 다울레트 디아나(카자흐 국립대), 한국어 부문의 1위는 오마로바 잔나(유라시아 국립대)가 차지하였다. 1위 3명, 2위 3명에게는 LG 스마트폰, 3위 5명에게는 상금 60,000텡ге, 장려상 4명에게는 상금 30,000텡게가 주어졌다. 상품과 상금은 알마티 한국교육원, LG 전자, 법무법인 CIS Group, 부산외대가 협찬하였다. 2월 27일 오후 제 1관 대강당에서 언어별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제 1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6년 4월 23일(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동양학캠퍼스(Tole bi 84)에서 제 1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한국 등 5개국 11개 대학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70명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한국학센터는 한국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11월부터 정기적인 학술대회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